

함평으로 시집 온 필리핀 출신 **아나벨**씨 경찰 외사요원 특채

# “어려운 이주여성 돕는 경찰 될래요”



## 농촌주부로 가정폭력 예방 활동... 3번째 '귀화 경찰관' 탄생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여성의 ‘대표’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그리고 당당하게 근무할 것입니다.”

필리핀에서 함평으로 시집온 ‘이주여성’이 경찰관이 됐다. 주인공은 지난 25일 중앙경찰학교를 졸업한 아나벨(여·41) 경장. 외사요원으로 특채된 그는 24주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던 이날 함평에서 올라운 시어머니와 남편, 자녀 앞에서 자랑스러운 ‘경장’ 계급장을 어깨에 달았다. 함께 임용된 1천30명의 졸업자 가운데 그녀와 인도네시아 출신 주지강(38) 경장만이 귀화자 출신이다. 지난해 임용된 중국동포 출신 신춘화(여·40) 경장을 포함해 3명의 ‘귀화 경찰관’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아나벨 경장은 1997년 5월 함평에서 농사를 짓는 남편(47)과 결혼하면서 한국인이 됐다. 필리핀에서 고교 교사로 일했던 그는 95년 남편을 소개받아 연애 끝에 결혼한 뒤 함평에서 11년 동안 남편의 일을 도우며 살아왔다.

짬짬이 월야초등학교에서 원어민 강사로 활동하며 아이들을 가르쳤고, 경찰에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들의 통역을 맡기도 했다. 평범한 이주여성이었던 아나벨 경찰에게 ‘제 2의 인생’을 선물한 사람은 함평경찰서 소속 권연희(34) 경사였다.

권 경사는 평소 이주여성들을 상대로 가정폭력 예방활동을 펼치며 아나벨 경장과 정이 들었고, 지난해 10월 외사계 통역요원을 특채한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그녀에 응시를 권유했다. 아나벨 경장은 흔쾌히 응했고, 필기·실기·적성검사 등을 거쳐 지난 2월 최종 선발돼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다. 그러나 입교 초기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보다 가족들에게 대한 걱정이 앞섰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세 자녀 성주(11), 성민(10), 유미(여·8)를 돌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올해부터 오리사육을 시작하는 남편을 도울 수 없게 된 것도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여기에 남편은 ‘아내가 너무 힘들어 질

것 같다’고, 필리핀 부모님은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로 그가 경찰관이 되는 것을 반대했다.

그러나 아나벨 경찰의 의지는 확고했다. 가정폭력을 당하고도 통역을 제대로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주여성들이 존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불법체류자들도 처벌이 두려워서 기관의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을 이해한 남편도 졸업식장에서는 “당신이 자랑스럽다”고 응원했다.

그는 앞으로 외사업무에 투입되기 전 6개월 동안 경기 안산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며, 현장을 체험하게 된다.

아나벨 경장은 “평범한 주부로 살다가 갑자기 새벽부터 일어나서 구보를 하고, 한국어로 된 어려운 교재도 공부를 하면서 이 길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저의 노력이 모든 이주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어려움에 처한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이 최선을 다해서 근무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광주시청 공무원 사랑의 헌혈 행사



여름철 헌혈 참여가 줄어들어 따라 광주시청 공무원들이 지난 25일 청사 1층 시민홀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 평통자문위원회 ‘日 독도 망언’ 규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광주지역 자문위원회는 지난 25일 광주시 서구 삼록회관 대연회장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망언 규탄대회를 가졌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여섯번째 스페인어 시집 ‘비는 11살’ 출간

### 민용태 전 고려대 교수

올해 2월 퇴임한 스페인어문학 권위자인 화순 출신 민용태(65) 전 고려대 교수가 13년 만에 여섯 번째 스페인어 시집 ‘비는 11살’(La lluvia tiene 11 años)을 출간한 데 이어 다음달 멕시코에서 ‘우연과 연꽃들’(Azares y azahares)이라는 제목으로 300페이지 분량의 시선집 출간한다. 하반기에는 국내에서도 6년 만에 시집을 출간할 예정이다.



활동을 했던 민 교수는 “양국 언어로 모두 시를 쓸 수 있어서 행운”이라는 말로 시집 출간의 소감을 내신했다.

1968년 ‘창작과비평’으로 국내 시단에 등단하고 이듬해 스페인에서 마차도문학상을 받으며 시인으로 데뷔해 1970~80년대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했다. 민 교수는 “시는 번역을 거치면 그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인도의 시집 타고르도 영어로 작품 활동을 했기 때문에 서구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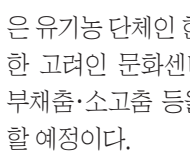
민 교수는 퇴임 이후에도 고려대와 한국사이버대학에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다.

## 한농복구회 예술단원 전통무술 지도 러 출국



이경진 씨

한농복구회 뽀나라 예술단원인 이경진(24·광주)씨와 임은정(26·서울)씨가 러시아 연해주 파르치잔스크시에 있는 고려인과 러시아 현지인을 대상으로 전통무용을 지도하기 위해 최근 출국했다.



임은정 씨

전주 한농예능학교를 졸업한 이들



## 어머니 나라서 전시회 열어 이웃돕기

### ‘봉사 천사’ 태국 타나 나한

“봉사활동을 꼭 어른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태국의 10대 소녀가 자국의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한국에서 주얼리 공예품 전시회를 열어 화제다. 주인공은 만 17살 소녀 타나 나한 치아라바논(애칭 타나).

그는 미국 유학 중 만난 중국계 태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타나는 26일 종로구 삼청동 한복원 갤러리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주얼리 공예품을 가지고 ‘반짝이는 나눔을 위한 타나의 주얼리전’을 열었다.

태국에서 태어나 현재 미국

명문 사립학교인 초우트 로즈 마리아에 유학 중인 타나는 학교 친구들과 고향의 태국인들 사이에서는 ‘봉사하는 천사’로 통한다.

주얼리 공예품을 판매해 마련한 돈과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얻어낸 기업 협찬금으로 타나는 태국 원주민 거주마을에 학교 건물 4곳을 지었다.

2005년 이후 매년 1곳씩 학교 건물을 짓던 그는 올해 초에는 ‘더 빌드 파운데이션’(The Build Foundation)을 직접 세웠고, 수업시간에 배운 주얼리 공예 실력을 이용해 공예품을 만들어 팔며 또 다른 학교의 건물 비용을 마련하고 있다.

## 조선대 대학원생 특강

중요무형문화재 38호 조선왕조궁중음식 보유자인 한복려(60) 궁중음식연구위원장이 외식문화 CEO과정을 개설·운영 중인 조선대 정책대학원 초청으로 오는 29일 오후 2시 경상대 8층 세미나실에서 특강을 한다.



## ‘재즈계 전설’ 그리핀 타계

재즈계의 살아 있는 전설인 조니 그리핀이 지난 25일 프랑스 자택에서 타계했다. 향년 80세. 검은 안경테 너머의 ‘리틀 자이언트’로 잘 알려진 그리핀은 생전에 리오넬 헬턴, 아트 블레이크, 설로뉴스 몽크 등 유명인들과 함께 연주에 나섰으며 18년간 모프레부아 마을에서 말년을 보냈다.

## 인사

- ◆환경부
  -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임흥우 ▲한국환경자원공사 기획관리이사 임정현 ▲제도운영이사 류시욱
- ◆산업은행
  - ▲목포지점장 문승석
- ◆신용보증기금
  - ▲광주 광산지점장 권이관

## 광주농협 농촌사랑 봉사단 발대식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신성수) 농촌사랑봉사단(단장 김은주)은 지난 26일 광산구 화해단지 앞에서 발대식을 갖고 우산동 박종복씨 농가에서 비닐하우스 철거작업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 수자원공사 전남본부 생활용품 일일 판매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송기근) 100여명의 직원들은 지난 25일 ‘아름다운 가게’ 광주역점에 가전제품 등 생활용품 2천여점을 기증하고 일일 판매활동을 펼쳤다. <수자원공사 전남본부 제공>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 동창·동문회

▲북성중 28회 동창회(회장 윤종철) 월례회=28일(월) 오후 7시 등촌. 062-373-1566.

## 종친회

▲남양홍씨 광주·전남 종회(회장 홍우표) 월례회=8월3일(일) 오후 7시 광주시 북구 신안동 호경빌딩 3층. 010-6618-9500.

##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성폭력 피

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장애 장애인에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 지원 및 심리 치료 등 서비스를. 062-232-1375, www.forchild.or.kr

▲푸른복지 문화센터 무료 수강생 모집=홈션, 리본공예, 웃음치료, 칼라믹스, 종이접기, 댄스스포츠 등. 010-9940-1769.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레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등 상담. 062-363-0442~3.

▲자비선원 명상 무료 지도=학생, 주부, 직장인, 마음의 평화를 원하시는 분. 062-228-770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

애차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 방문·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대한노인회 광주 취업지원센터 일자리 안내=광주시에 거주하는 심신 건강한 60세 이상 노인. 주민등록증 지참, 동구센터 062-223-8324, 서구센터 062-431-4529, 남구센터 062-432-0947, 북구센터 062-433-6050, 광산구센터 062-942-0204.

## 모집

▲인우회 회원 모집=광주지역 전·의경 전역자들의 모임, 회장 019-277-0007.

▲트로트 가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모집=누구나 환영. 017-661-0991.

▲사랑의 배움학교 문해 한글과정 지원봉사 교사 및 수강생 모집=성인한글 기초·중급·고급반, 중입

검정고시반, 한문반. 광산구 하남 성심병원 인근. 062-951-5397, 011-9456-6037.

▲푸른학당 자원봉사 및 학생 모집=문해교육(한글과정), 초등·중등 과정, 검정고시반. 062-529-1188, 010-9940-1769.

▲디딤돌 장애인야학 교사·학생 모집=초·중·고 졸업을 준비하시는 장애인 및 수업을 만들어갈 선생님, 오차4거리에서 도보로 3분. 010-3423-1567.

▲광주FC 축구회원 모집=매주 토요일 오후 운암동 서강고 운동장. 017-656-3431.

▲한마을 장애인자립 생활센터 장애인 사물놀이 모집=장구, 징, 팽과리, 북 함께 하실 장애인(손이 자유로우신 분), 약기 후원 받음. 062-431-8025, 010-9676-0828.

▲한국웃음요가연구소(소장 김영식 박사) 국제 웃음요가 지도자양성

수시 모집=웃음치료, 웃음요가 무료 상담, www.hahayoga.co.kr 062-381-8254, 011-9374-7482.

▲황실 십자수 무료 수강생 모집=쿠션·시계·베개·주차중·방석·액자·지갑·핸드폰걸 제작 등 무료 교육. 062-512-4000, 062-528-8500.

▲늘기쁜 지역 아동센터 공부방 무료 수강생 모집=초등학생, 방과후 숙제 및 학습 지도. 062-511-6771.

▲전통문화예술단 굴림 무진놀이 모임=초·중·고 졸업을 준비하시는 장애인 및 수업을 만들어갈 선생님, 오차4거리에서 도보로 3분. 010-3423-1567.

▲광주FC 축구회원 모집=매주 토요일 오후 운암동 서강고 운동장. 017-656-3431.

▲한마을 장애인자립 생활센터 장애인 사물놀이 모집=장구, 징, 팽과리, 북 함께 하실 장애인(손이 자유로우신 분), 약기 후원 받음. 062-431-8025, 010-9676-0828.

▲한국웃음요가연구소(소장 김영식 박사) 국제 웃음요가 지도자양성

주시장애인체육회 방문 및 홈페이지(www.gjsad.or.kr), 전화 상담후 신청. 062-384-5544.

▲놀이때 ‘신명’ 단원 모집=연극·탈춤·풍물·소리 등에 관심 있는 젊은 남녀. 062-527-7295.

▲북구 골든벨 축구클럽 동호회 원 모집=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분. 20세 이상, 선수출신 환영. 011-608-1060.

▲한국마사회 광주지점 문화교실 무료 수강생 모집=꽃꽂이교실(수·오전 10시), 노래교실(수·오후 2시), 댄스스포츠(목·오전 10시), 뽕사랑(수·오전 9시30분). 062-410-5000.

▲화순 호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 목욕 신청자 모집=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문의 061-373-8865.

우회 이사장)·재일(전남대 법대 교수)씨 모친상=발인 28일(월) 각화동 그린장례식장 7분향소. 062-250-4407.

▲김영한씨 별세 장성민(전 국회의원)씨 모친상=발인 29일(화) 서울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3호실. 02-2650-2743.

▲최양선씨 별세 영진(농협)·영호(자영업)·인화·은화씨 부친상 강영식·조기호(광진우체국)씨 부부상=발인 29일(화) 화동 금호장례식장 401호. 062-227-4383.

▲홍태운씨 별세 호성·은주·주연·유선씨 부친상 김모수씨 부부상=발인 29일(화) 각화동 그린장례식장 12분향소. 062-250-4412.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기적같은특별분양  
11월 (062)222-0201

## 부음

▲김남례씨 별세 오재구(한국세